영어어문교육 *제25권* 2호 2019년 여름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 출제 경향 분석: 2015~2019학년도 영어교육 문항을 중심으로*

임 정 완
(대구대학교)

Lim, Jeongwan (2019). Analysis of test items in the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 recruitment exam: Focused on the test items of English education from 2015 to 2019.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5*(2), 91-1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est items from the written component of the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 recruitment exam. Focused on the school years from 2015 to 2019, the analysis is based on a collection of 108 test items. A frequency cou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erent question types and the representation of each field and the sub-fields of English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ut of all fields, the largest number of items was based on English education followed by English linguistics, general English and English literature. Second, the sub-fields of English education were not evenly distributed, and the most significant part was about teaching methodology and four skills of teaching English. And the least was about curriculum and teaching materials and ICT teaching method for English education. Third, the test items regarding English education had higher test authenticity and interactiveness than construct validity. Based on these results of the study,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English education/item analysis/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 recruitment exam/written exam, 영어교육/문항 분석/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지필고사]

I. 서론

2020학년도를 기점으로 학령기 인구의 절벽이라는 표현이 회자될 정도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초, 중, 고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수 또한 점차 줄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교사의 수도

* 이 논문은 2017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점점 줄어들게 되어 해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2019학년도 영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려고 응시하는 숫자는 268명 모집에 5,851명이 지원하여 평균 21.83대 1의 경쟁률로 치솟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은 1991년도에 최초로 시작되어 거의 5년을 주기로 그 문항의 출제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경향(박시영, 송민선, 신상근, 이은주, & 이미진, 2017)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009학년도에 있었는데 기존의 1차(단답형 주관식 및 객관식 혼합 지필고사)와 2차 시험(수업시연 및 영어 면접 형태)으로만 시행되어오던 시험 유형이 2009학년도부터 1차(듣기와 5시 선다형 지필고사)와 2차(영어논술) 그리고 3차(수업시연 및 영어 면접 형태)시험으로 3단계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4학년도부터는 바뀐 3단계 전형방식을 다시 암기위주의 객관식 유형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이전의 2단계로 간소화(교육부, 2012년 12월 29일)되었으며, 문항 유형은 서답형(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등)으로 바뀌었다. 또한 듣기 문항은 2015학년도부터는 타 외국어과목 응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영어로 실시하는 2차 시험과 중복되며,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이소영, 2015)에서 다시 폐지되었다. 그리고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까지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라는 문항 출제 방식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20학년도부터는 논술형이 교육학 과목의 논술 능력 평가와 중복 평가 된다는 이유로 또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잦은 출제 방식의 변화로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듣기 문항이 폐지된 2015학년도를 기점으로 2019학년도까지의 최근 5년간 임용시험 기출 문제를 영어교육 분야의 문항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영어학과 영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는 영어교육 분야의 문항들이 그 세부 영역에서 균형되게 출제 되고 있는지, 내용 요소와 질적 측면에서는 어떠한지를 조사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2019학년도 중등영어교사 임용 1차 시험의 영어교육 분야 출제 비중은 어떠한가?

둘째, 2015~2019학년도 중등영어교사 임용 1차 시험의 영어교육 분야 세부 영역별 출제 비중은 어떠한가?

셋째, 2015~2019학년도 중등영어교사 임용 1차 시험의 영어교육 분야 세부 영역별 문항의 내용요소와 질은 어떠한가?

II. 선행 연구

1.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 전형방식의 변천

1991년부터 시작된 중등 임용시험 제도는 시대별로 그 출제 방식과 문항의 형태가 여러 차례의 개편 과정을 거쳤는데, 평균적으로 5년에 한번씩은 문제 유형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1은 2000년 이후에 변화된 임용시험 전형 방식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1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 전형방식의 변천

학년도	2002~2008	2009~2013	2014	2015~2019	2020
전형 문제유형	2단계 단답/서술형 (서울, 인천, 전국)	3단계 5지선다형 (전국)	2단계 단답/서술/논술형 (전국)	2단계 단답/서술/논술형 (전국)	2단계 단답/서술형 (전국)
문항수	16~25	40(듣기 8문항)	23~26(듣기 5문항)	20~22(듣기 폐지)	23(논술형 폐지)
만점	70~80	80	80	80	80
배점	각1~9점	각1.5~2.5점	각2~10점	각 2~10점	각2~10점

1990년도에는 4지 선다형과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 서울과 인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임용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 전국 문제 유형은 그 외의 지방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되었다. 2009년도에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출제 유형이 바뀌게 되는데, 1차 시험 문제를 5지 선다형의 객관식 유형으로 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나 2014년에 이르러 이러한 문제 유형은 객관식과 단순 암기위주로 인해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으로 인해 다시 기입형,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의 유형의 시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듣기 문항이 타 외국어과목 응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영어로 실시하는 2차 시험과 중복 평가되고, 그리고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교육부, 2014년 5월 2일)로 폐지되었고, 지금까지 듣기 문항이 없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그런데 2020학년도부터는 기입형은 단순 기억력 평가 경향이 있고, 논술형은 교육학 과목의 논술 능력 평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가 될 예정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다음 표 2는 202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문항 유형을 보여준다. 영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논술형 문항은 영어로 답을 적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교시 교육학 시험에서 논술로 평가를 하므로, 중첩되는 작문 실력으로 전공 지식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폐지

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영어과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모든 과목과의 형평성이라는 논리로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9학년도부터 2차 시험에 도입된 논술형 문항은 영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출제 유형이었고, 이때 당시 교육부에서는 '영어교육논술'이라는 과목을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교육학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논술형 문항을 1교시 교육학 과목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시행 10년만에 다시 과거로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표 2
2020학년도 중등 임용 제1차 시험의 문항 유형 및 문항 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시험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시험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	20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	20	
전공	전공A 2교시 (90분)	기입형	8	16	40	전공	전공A 2교시 (90분)	기입형	4	8	40
		서술형	6	24				서술형	8	32	
	전공B 3교시 (90분)	서술형	5	20	40		전공B 3교시 (90분)	기입형	2	32	40
			2	10				서술형	9	36	
		논술형	1	10							
소계			22	80		소계			23	80	
계(배점)			23	100		계(배점)			24	100	

2. 관련 선행연구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 지필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전체적으로 1차와 2차 임용시험 문항을 분석한 연구(김정렬 & 김영미, 2009; 박광철, 2012; 박시영 외, 2017; 이소영, 2015; 이지연, 2017; 임정완, 2011a; 전영주, 2009, 2010)와 영어과 전공 영역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1차 임용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한 문헌(박미숙, 2016; 윤수현, 2018; 이혜진, 2017; 임정완, 2011b)

그리고 임용시험의 지문을 코퍼스 분석으로 한 연구(김아영, 2011; 김현숙 & 박은영, 2013; 박광철, 2012; 오승하 & 김정렬, 2018; 이지연, 201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출제 경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2014학년도 개정 이전의 임용시험 객관식 1차 문항을 대상으로 연구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김정렬과 김영미(2009)는 2006학년도에서부터 2009학년도의 기출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객관식화 된 2009학년도 임용시험과 그 이전의 임용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였는데, 2009학년도 임용시험의 1차 시험문항이 이전과는 달리 평가영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정완(2011a)은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 1차 임용시험 120문항을 대상으로 연도별, 발문유형별, 내용영역별로 문항을 분석하였고, 영역별로 정형화된 발문형태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내용영역별 분석 결과로는 영어교육, 영어듣기, 영어학, 영문학과 일반영어의 순으로 일관된 배점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각 분야의 세부 영역별 분석 결과에서는 연도별로 출제 경향에 큰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소영(2015)은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영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지필평가를 검토하여 그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지필평가의 문항을 유형별, 전공 출제 범위별, 평가 분야별, 영어교육의 세부영역별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2014학년도에는 일반영어가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듣기 평가가 폐지된 2015학년도에는 영어교육이 일반영어보다 더 많은 출제비중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교육의 5가지 세부영역 평가에서 영어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고른 출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박시영 외(2017)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까지 영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기출 67문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 영역별 출제비율은 영어교육학이 가장 많은 비중(40%)을 차지했고, 일반영어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역별 출제빈도와 비중이 매년 조금씩 변화되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지연(2017)은 2016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의 중등 영어 1차 임용시험의 문항을 영역별, 문제 유형에 따른 배점 및 출제 비율에 따라 양적 분석을 하고, 내용 교수 지식 및 구인타당도, 진정성, 상호작용성을 기준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양적 분석의 결과로는 2016~2017학년도 영어과 중등 임용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출제 비율과 범위를 잘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어학과 영어교육 영역은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교실현장에서 사용되는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 시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응용 문항이 많아진 반면에, 영문학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용이해에 초점을 두는 문항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질적 분석 결과로는 영어교육론과 일반영어 문항들에 비해서 영어학

과 영미문학의 문항들은 교실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전문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일반영어 수준에서의 문항들이 섞여 있어, 낮은 구인타당도를 갖는다고 분석되었다.

임용시험의 지문을 코퍼스 분석으로 한 연구로는 김현숙과 박은영(2013), 박광철(2012), 이지연(2017), 그리고 오승하와 김정렬(2018) 등이 있는데, 2013학년도 임용시험의 지문에 대한 텍스트의 표면적 연구를 통해 지문이 전체적으로 길이는 늘어났으나 가독성은 낮아진 것을 김현숙과 박은영(2013)의 연구에서 밝혀 냈고, 박광철(2012)은 2012학년도 중등 임용 영어시험 지문에서 듣기와 독해 문항에 나타난 어휘의 난이도가 이전 시험에 비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지연(2017)은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임용시험의 지문을 대상으로 어휘 분석을 실시하여 어휘의 양이 증가했고, 지문의 양이 늘어났으나, 오히려 지문 난이도는 점차 낮아졌음을 밝혀냈다. 오승하와 김정렬(2018)은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의 임용시험 1차 시험 지문을 대상으로 코퍼스를 구축하여 시험의 응집성을 조사하였는데, 영어교육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모두 높은 응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으로, 영어과의 세부 전공 영역 별로 집중해서 임용시험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임정완(2011b), 윤수연(2018)과 이혜진(2017)의 연구가 있다. 먼저 임정완(2011b)은 1992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의 영어교육 관련 220문항을 연도별, 세부내용 영역별로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2002학년도 이전에는 영어교육의 세부영역이 언어습득 및 학습 이론과 교수법 분야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나, 2002학년도에 들어서는 영어 기능 및 ICT 활용 영어지도 부문의 문항이 증가되어 왔으며, 2009학년도부터는 비교적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교육과정 및 교재론, 평가, 교수법, 영어 기능 및 ICT 활용 지도분야 등 5가지 영역에서 균형되게 출제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윤수연(2018)은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까지 시행된 영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에서 출제된 영어학 문항들을 연도별, 세부 분야별, 문항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2014학년도 이후로 임용시험에서 영어학 문항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세부분야별로는 음운/형태 및 통사/의미 분야에서 대부분의 문항들이 출제되었고, 서술형 문항을 통해 자료의 분석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영어학의 출제 빈도 증가와 범위 확대, 난이도 증가는 현재 영어과 중등교원 양성과정의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영어과 교육과정 및 임용시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영문학 분야의 임용시험 문항만을 분석한 연구로는 이혜진(2017)의 연구가 있다. 이혜진(2017)은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의 1차 임용시험 문항 중 영문학 문항만을 중심으로 영미 시, 소설, 드라마 및 희곡, 수

필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시험 문항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출제된 문학작품의 집필된 배경이 시대적으로 편향된 문제가 출제되어 구인 과소 대표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4학년도 이후 임용시험에서 영어교육 분야만을 집중하여 분석한 논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듣기 문제가 폐지된 시점인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교육 분야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어왔는지, 또한 영어교육의 하위 영역별로 어떠한 경향으로 출제되어 왔는지, 그리고 문항의 내용요소와 질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차기 학년도부터 출제가 될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듣기 문항이 폐지된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 1차 기출 문제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총 108문항의 기출 문제를 영어과의 세부 영역인 영어교육, 영어학, 영문학 그리고 일반영어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별 문항 수와 배점을 빈도 계산하였다. 이 중 영어교육 관련 문항인 총 41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에서 제시한 영어교육의 세부 5가지 영역(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교육과정 및 교재론, 평가, 교수법, 영어기능 및 ICT 활용지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문항은 다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라는 문제 유형을 기준으로 재 분류하여 문항 수와 배점을 빈도 계산하였다. 영어교육과 일반영어를 제외한 영어학과 영문학 문항은 분야별 전공자의 도움을 얻어 분류하였다.

또한 문항의 질적 분석 기준은 Backman과 Palmer(1996)가 제시한 시험유용도의 6가지 속성 중 문항의 구인타당도, 진정성, 상호작용성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였다. 중등 영어과 임용시험의 구인은 중등학교 영어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능, 소양이다. 즉, 영어과 임용시험 문항은 교육현장에서 실제 영어교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기능 및 소양을 측정하여 잘 가르치는 교사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험과제의 특성과 목표언어 사용 영역 사이의 일치 관계이다. 중등 영어과 임용시험의 목표언어 사용영역은 중·고등학교 수업 현장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일치할수록 문항의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상호작용성은 시험과제 수험자와 시험과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시험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험자의 언어지식, 초인지적 전략, 명제적 지식, 수험자의 특성, 정의적 스키마가 관련되고 사용될수록 문항의 상호작용은 높다고 판단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영역별 출제 비중

영어과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처럼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그리고 일반영어로 나누어서 영역별 출제 비율을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영어교육 분야의 출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출제 비율인 25% ~ 35%를 넘는 평균 40.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영어교사를 선발하는 목적인 임용시험의 목적에 맞게 교실현장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는 영어교육학적 지식을 묻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이지연, 2017),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시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는 분야는 영어학이다. 영어학은 평균 27.8%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음성음운론과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을 위주로 꾸준히 출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7학년도에는 갑자기 영어학 문항이 증가되다가 2019년에 다시 줄어든 현상을 보인다. 반면에 영문학은 평균 출제 비율이 13.7%로 일반영어의 출제 비율인 17.8%보다도 더 적은 비중으로 출제되어 전공영어로서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박시영 외(2017)과 이지연(201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어교육의 출제 비중이 40.75%, 영어학과 영문학을 합한 평균 비중이 41.50% 이고, 그 나머지가 일반영어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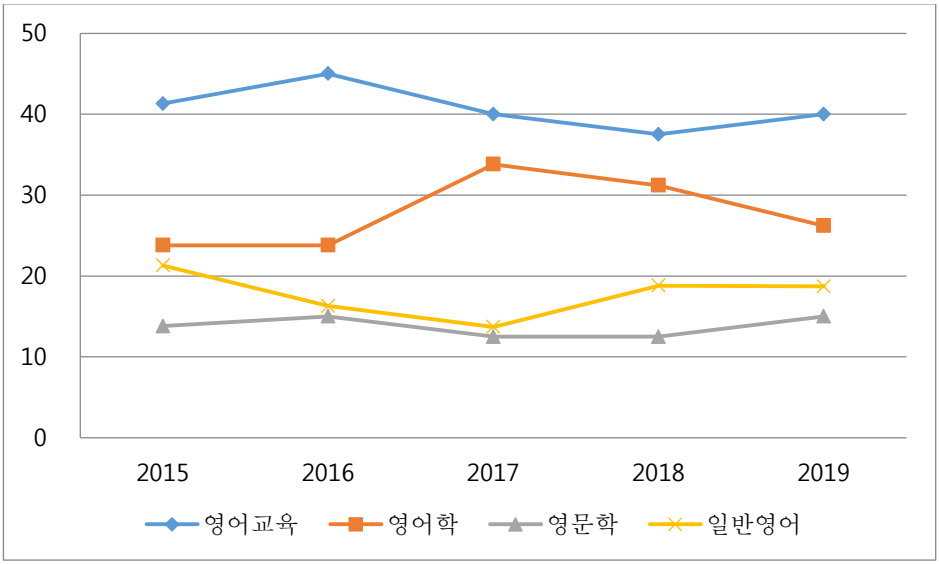
각 영역별 출제 비중

학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역		문항 (%)	배점 (%)	문항 (%)	배점 (%)	문항 (%)	배점 (%)	문항 (%)	배점 (%)	문항 (%)	배점 (%)
교과교육학	영어교육학	8 (40)	33 (41.3)	9 (40.9)	36 (45)	8 (36.3)	32 (40)	8 (36.3)	30 (37.5)	8 (36.4)	32 (40)
교과내용학	영어학	5 (25)	19 (23.8)	6 (27.3)	19 (23.8)	8 (36.3)	27 (33.8)	7 (31.8)	25 (31.2)	6 (27.2)	21 (26.2)
	영문학	4 (20)	11 (13.8)	4 (18.2)	12 (15)	3 (13.7)	10 (12.5)	3 (13.7)	10 (12.5)	4 (18.2)	12 (15)
일반영어	문화이해 및 4기능 능력	3 (15)	17 (21.3)	3 (13.6)	13 (16.3)	3 (13.7)	11 (13.7)	4 (18.2)	15 (18.8)	4 (18.2)	15 (18.7)
합계		20 (100)	80 (100)	22 (100)	80 (100)	22 (100)	80 (100)	22 (100)	80 (100)	22 (100)	80 (100)

이를 보기 쉽게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15학년도~ 2019학년도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 영역별 출제 비중



2. 세부 영역별 출제 경향

영어교육 분야의 세부 영역 출제 비중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의 하위 영역 분류에 따라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교육과정 및 교재론', '교수법', '영어기능 및 ICT 활용지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되었다.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교수법'과 '영어기능 및 ICT 활용 지도'로서 교실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서술과 논술을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영어기능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과 어휘 지도 같은 분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ICT 활용지도에 대한 문항은 2015학년도에 단 한 번만 출제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분야는 '평가'로서 해마다 '평가' 관련 문제는 한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육과정 및 교재론'은 최근 5년간 단 두 문항만이 출제되고 있어, 세부영역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영역은 2014학년도 이전에는 단순 지식을 묻는 문항들이 많았으나, 2015학년도에 들어서는 주로 기입형 문항에서 출제가 되는 빈도가 잦았고, 2019학년도에는 서술형으로 두 문항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비중에 있어서는 교수법이나 영어기능지도 보다는 훨씬 저조하였다. 아래 표 4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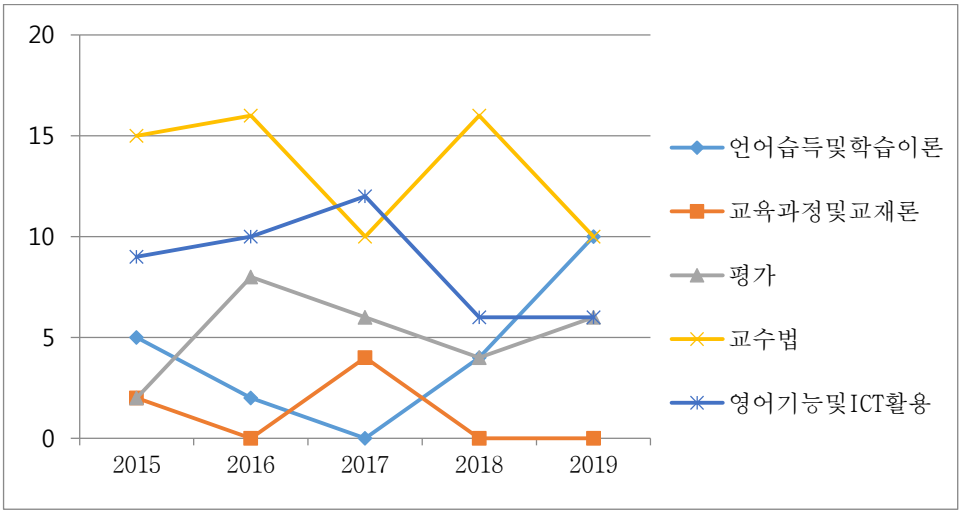
영어교육 세부 영역 출제 경향

연도	문제 유형 (배점)	언어 습득 및 학습 이론	교육 과정 및 교재론	평가	교수법	영어 기능 및 ICT 활용 지도	문항 수	총 배점	전체 %
2015	기입(2점) 서술(5점) 논술(10점)	0 1 0	1 0 0	1 0 0	0 1 1	2 1 0	8	33	41.25
2016	기입(2점) 서술(4점) 논술(10점)	1 0 0	0 0 0	0 2 0	1 1 1	1 2 0	9	36	45
2017	기입(2점) 서술(4점) 논술(10점)	0 0 0	0 1 0	1 1 0	0 0 1	2 2 0	8	32	40
2018	기입(2점) 서술(4점) 논술(10점)	2 0 0	0 0 0	0 1 0	1 1 1	1 1 0	8	30	37.50
2019	기입(2점) 서술(4점) 논술(10점)	1 2 0	0 0 0	1 1 0	0 0 1	1 1 0	8	32	40
	합계(배점) %	7(21) 12.88	2(6) 3.68	8(26) 15.95	10(67) 41.10	14(41) 26.38	41 (8.2)	163 (32.6)	40.75

이를 보기 쉽게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전반적으로 영어교육의 하위 5개 영역의 출제는 일관된 비율로 출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각 영역별 배점으로 본 출제 비율은 일관되지 않고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영역은 교수법, 영어기능, 평가, 언어습득,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재론 순이었다. 교육과정 및 교재론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2016, 2018, 2019학년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도 2017학년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림 2

2015~2019학년도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의 영어교육 세부문항 출제 비중



3. 세부 영역별 문항의 내용요소와 질적 분석

다음으로는 영어교육 분야의 각 세부 영역 별 문항들의 내용요소와 질적 분석을 5가지 영역(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교육과정 및 교재론, 평가, 교수법, 영어기능 및 ICT 활용 지도)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1)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분야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분야는 2017학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기입형 4문항, 서술형 3문항으로 총 7문항이 출제되었고 전체에서 12.88%를 차지하였다. 이는 영어교사로서 기본이 되는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의사소통전략, 세계영어, 학습이론 중 우연적 학습과 구성주의 범주에 들어가는 근접발달영역 지대, 오류분석, 전이와 간섭, 과잉일반화 등에 대해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2015학년도 전공A 서술형 2번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보고 uptake가 일어난 문장과 사용된 의사소통전략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보기에서 제시된 교사와 학생의 대화는 실제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문항의 진정성은 높다. 또한 이론의 내용을 주어진 대화와 연계시켜 수험자가 분석하도록 하기에 상호작용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인타당도의 측면에서는 미흡한데, 문항에서 측정하려는 바와 실제 교사에게 필요한 사항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uptake의 종류를 묻는 것 만으로는 교

사의 수업 상황 대처 능력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uptake가 일어났을 때 학생에게 알맞은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좀 더 알맞을 것이다. 2016학년도 전공A 7번 문제는 국제어로서 영어의 다양성에 대한 교사들의 온라인상의 논의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세계영어에 대한 지식을 단답식 기입형으로 묻고 있다. 이는 수험자에게 내용의 이해력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상호작용성이 높으나,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교사가 영어로 논의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진정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영어교사로서 알아야 할 세계영어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으므로, 구인타당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5는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분야에 관해 출제된 내용 요소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에서 2015학년도 A-서술형2번은 1교시 시험지인 전공A의 서술형 2번 문항을 의미하며, 2016학년도 A-1은 1교시 시험지인 전공 A의 1번 문항을, 2019학년도 B-4는 2교시 시험지인 전공B의 4번 문항을 의미한다.

표 5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분야

학년도	유형	배점	문항 번호	내용 요소
2015	서술형	1(5)	A-서술2	의사소통전략
2016	기입형	1(2)	A-7	영어의 다양성, 세계 영어
2018	기입형	1(2)	A-1	학습이론, 우연적 학습
		1(2)	A-7	구성주의, 근접발달영역
2019	기입형	1(2)	A-1	학습자유형 변인
	서술형	1(4)	A-11	오류분석, 전이, 간섭, 과잉일반화
		1(4)	B-4	의사소통전략 유형
합계		7(21)		

2) 교육과정 및 교재론 분야

최근 5년간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과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교재론에 관해서도 2015학년도와 2017학년도에 각각 단 1문항씩만 출제되었고, 이는 전체에서 3.68%의 비중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가장 적게 출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도 핵심역량(교육부, 2015)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의 실제 모습과 중등영어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에서 출제되는 경향과는 많은 괴리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교재론도 교사로서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나 수업활동교재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교수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해야 할 영역(이현구, 2014)임에도 불구하고 출제의 빈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2016학년도 기입형 2번 문항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교사가 수정한 자료를 보고 교사가 사용한 언어적 수정의 종류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은 교사에게 언어적 변형의 종류를 아는지를 묻지만, 실제 교사가 수업자료를 올바르게 변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기에 구인타당도는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으므로 문항의 진정성은 높고, 수험자의 분석력을 요구하므로 상호작용성도 높다. 또한 2017학년도 전공B의 서술형 2번은 학생의 수준과 흥미와 요구에 맞는 교재를 준비하기 위한 교사의 교재 응용 능력을 측정하고자 교재 응용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실제 교사가 교재를 응용한 기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교재 응용 능력을 묻고 있으므로, 구인타당도가 높고, 진정성과 상호작용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6

교육과정 및 교재론 분야

학년도	유형	문항 수 (배점)	문항 번호	내용 요소
2015	기입형	1(2)	A-2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재 활용 학생의 흥미와 요구에 따른 학습자료 사용 능력
2017	서술형	1(4)	B-2	
합계		2(6)		

3) 평가 분야

평가 분야는 최근 5년간 해마다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총 8문항으로 전체에서 15.95%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나서 그 성취도를 확인해야 하는 매우 필수적인 분야이므로, 임용시험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임용시험에서 묻는 평가 관련 문항은 전반적으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평가 방안에 대한 것으로 학습자 평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요소는 문항 변별도 이해도, 성취도 평가 원리, 학습자 요구 분석과 대체평가 방안, 포트폴리오, 예측 타당도, cloze 테스트, 진단평가와 적성평가, 그리고 채점의 유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16학년도 서술형 13번과 2017학년도 서술형 9번의 경우에는 실제 수업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학습자의 요구 분석이나 평가를 수업 종료 후에 치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보완점을 제시하도록 하게 하여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능력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학년도 서술형 13번 문항과 2019학년도 기입형 2번 문항, 서술형 12번 문항

도 교실 현장에서 교사가 사용한 평가와 채점 유형(cloze/aptitude test와 holistic scoring)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지를 교사와 학생의 대화, 교사 간의 대화, 교사 일지 등을 통해 묻고 있어 진정성과 상호작용성, 그리고 구인타당도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
평가 분야

학년도	유형	문항수 (배점)	문항 번호	내용요소
2015	기입형	1(2)	A-3	시험지 문항 변별도
2016	서술형	2(8)	A-13	성취도 평가 원리
			B-1	학습자요구 분석과 대체평가 방안
2017	기입형	1(2)	A-1	과정중심평가 포트폴리오
	서술형	1(4)	A-9	예측 타당도
2018	서술형	1(4)	A-13	진단평가
2019	기입형	1(2)	A-2	cloze 테스트
	서술형	1(4)	A-12	진단평가, 적성평가, 분석적 채점, 종합적 채점
합계		8(26)		

4) 교수법 분야

교수법 분야는 최근 5년간 총 10문항, 배점은 총 67점, 전체에서 41.10%로서 가장 높은 배점으로 출제되는 분야로 집계되었다. 이는 주로 논술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전체 문항 수는 영어 기능지도 및 ICT 활용 지도(총 14문항)보다는 적지만 배점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다. 주로 다루어진 내용 요소로는 수업 목표를 제시하게 한다든지, 교사의 일지를 통해서 교사가 사용한 교수 방법을 찾아서 기술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학생에게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의 유형을 기술하게 한다든지 등 주로 교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수업 현장을 기술하고 그 안에서 무슨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술하게 하는 경향이 짙었다. 예를 들어, 2016학년도 전공A의 서술형 3번과 12번은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발화 오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은 문항으로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이 매우 높으며,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영어교사로서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구인타당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8학년도 전공A 서술형 10번, 전공B 서술형 5번과 논술형 8번은 교실에서 볼 수 있는 과업중심교수법과 수업계획서상의 교실 활동, 그리고 의사소통중심 교수 활동 방안을 <A>로 제시하고, 교사가 실제로 교실에서 행한 것을 <B>로 제시하면서 교사가 수업에서 행하지 않은 활동이나 단계를 기술하도록 하는 문항으로서 구인타당도와 진정성 그리고 상호작용성이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2019학년도 전공 B의 8번

논술형 문제를 보면 두 교사의 반성적 일지를 통해서 교사가 교실에서 사용했던 교수 기법과 사용하지 않은 교수 기법을 찾아 기술하도록 묻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 학습자 변인, 평가 방법 등을 혼합한 교실 현장의 교수법 응용력을 평가하려는 문항으로 구인타당도가 높고, 진정성과 상호작용성도 높은 양질의 문항으로 볼 수 있다.

표 8

교수법 분야

학년도	유형	문항수 (배점)	문항 번호	내용요소
2015	서술형	1(5)	A-서술1	수업 목표 서술
	논술형	1(10)	B-논술2	학생의 수업평가와 교사 일지
2016	기입형	1(2)	A-3	직소활동을 이용한 수업설계
	서술형	1(4)	A-12	학생 발화 오류 수정 피드백 유형
	논술형	1(10)	B-8	문법지도 교수방법 비교
2017	논술형	1(10)	B-8	교사역할 비교 및 교수방법
2018	기입형	1(2)	A-3	교수학습방법유형, 거꾸로 교실
	서술형	1(4)	A-10	문법중심수업, 의사소통중심 수업
	논술형	1(10)	B-8	교사의 수업지도방안
2019	논술형	1(10)	B-8	교사의 반성적 일지와 교수법
합계		10(67)		

5) 영어기능 및 ICT 활용지도

영어기능 및 ICT 활용 지도 분야는 최근 5년간 총 14문항, 배점은 43점으로 전체에서 26.38%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다시 들여다 보면, 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4기능 지도 방안에 대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ICT 활용지도에 관한 문제는 2015학년도에 단 한 번만 출제가 되었고, 그 후론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아무래도 영어의 4기능 교육을 통합하고 균형되게 지도해야 하는 영어교육 전공의 특성상 4기능 위주의 수업 지도 활동 관련하여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응용 분야인 ICT 활용 지도가 2009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기본이수 과목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 교과과정에 있는 '멀티미디어활용 영어교육론' 이라는 과목을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에는 출제 빈도가 낮은 괴리가 빚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의 문항의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구인타당도의 측면에서는 기입형 문항에서 다소 그 기준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학년도 기입형 4번 문항은 말하기 지도에서 정보교류기능(transactional function)을 묻고 있는데, 교사와 학생의 대화 소재는

목표언어 사용영역과 관련이 있고,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수험자의 지식과 연계시켜 문항을 해결해야 하므로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구인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8학년도 기입형 8번 문항은 교사가 학생의 글에 제시한 피드백에 대해 학생이 질문을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완곡어법(euphemism)에 대한 설명을 교사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은 교실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진정성이 높으나,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일반화를 도출해 내는 분석력을 측정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상호작용성은 떨어지며, 구인타당도의 측면에서 보면 교사가 이러한 완곡어법이라는 명칭을 알고 있는 가를 묻기 보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므로 구인타당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술형 문항에서는 단순한 이론과 지식을 측정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교실 상황에서 주어진 활동 또는 과업이나, 학습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게 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사의 전문적인 교수 능력을 평가하는 양질의 평가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학년도 서술형 1번은 수업계획서를 이해하고 수업 목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사로서 수업계획서 작성시 알아야 할 수업목표 진술 능력을 측정하므로 구인타당도가 높고, 주어진 소재가 교사와 학생이 알아야 할 문화차이이므로 진정성이 높으며, 수험자의 분석적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상호작용성이 매우 높다. 2017학년도 서술형 4번 문항도 <A>지문에 주어진 피드백 유형을 바탕으로 <B>지문의 실제 대화에서 쓰인 대화협상의 전략을 연결시켜 답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수험자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과 지문의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상호작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19학년도 서술형 14번 문항은 쓰기 지도에서 과정중심과 결과 중심 글쓰기의 유형을 이해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글쓰기 단계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를 기술하게 하므로 구인타당도가 높고, 실제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므로 진정성이 있으며, 수험자의 지문 이해에 기반한 분석력을 요구하므로 상호작용성도 높은 좋은 문항으로 보인다.

표 9

영어기능 및 ICT 활용지도 분야

학년도	유형	문항수 (배점)	문항 번호	내용요소
2015	기입형	2(4)	A-4	말하기지도, 정보교류기능
			A-5	읽기지도, 읽기 유형(다독)
	서술형	1(5)	B-1	컴퓨터 활용 영어교육

2016	기입형	1(2)	A-1	읽기지도, 전략 지도 원리
	서술형	2(8)	B-3	쓰기지도, 선험적 지식/연결사
			B-5	문법지도, 귀납적/연역적 방법
2017	기입형	2(4)	A-6	읽기지도, 스캐닝/스키밍
			A-7	발음지도, 최소대립쌍
	서술형	2(8)	B-1	문법지도, 형태초점 교수방법
			B-4	말하기지도, 의미협상 전략
2018	기입형	1(2)	A-8	쓰기지도, 완곡어법 설명
	서술형	1(4)	B-5	문법지도, 유의미한 문법학습 활동
2019	기입형	1(2)	A-3	말하기지도, 교사 피드백 유형
	서술형	1(4)	A-14	쓰기지도, 결과중심/과정중심 글쓰기
합계		14(43)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의 듣기 유형 문제가 폐지된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까지 최근 5년의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영역별 출제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영어교육 분야의 하위 영역별 출제가 어떠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 지 그리고 하위 영역별 문항의 내용요소와 질은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최근 5년간 시행된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의 영어교육 분야의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시하는 25~35%보다는 더 많은 41.25% 비율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은 영어학이었으며, 영문학과 일반영어는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교과내용학에 해당되는 영어학은 영문학에 비해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영문학은 일반영어보다도 더 적게 출제가 되고 있어 전공영어로서의 그 의미가 반영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2014학년도부터 새로이 시도된 출제 유형이 반영되면서, 일반 영어 능력보다는 전공 영어 지식의 중요성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영어학 분야는 출제 비중이 증가되어 왔으나, 오히려 영문학은 그 학습 범위가 매우 방대하지만, 출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전공지식보다는 영어 지문만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답할 수 있는 독해력 평가 문항(김기수, 2007)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어교육의 세부 영역 5분야는 최근 5년간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 영역은 해마다 그 출제 비율이 달라지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분야는 교수법, 영어기능지도, 평가, 그리고 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적게 출제가 되는 분야는 ICT활용 지도와 교육과정과 교재론이었다. 이는 2009학년도에서 2015학년도까지 균형되게 세부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다

는 선행연구(이소영, 2015; 임정완, 2011b)와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2014학년도 이후로는 세부 영역의 출제 경향이 학교 현장 중심의 응용력을 위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교수법과 영어 4기능 지도 위주의 문항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문항의 내용요소와 질적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항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수험자의 이해와 분석력을 요구하므로 진정성과 상호작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에 비해 기입형 문항에서는 교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전문 지식 능력보다는 단순한 암기 지식만을 평가하는 것도 있어서 구인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교육의 하위 영역이 지나치게 교수법과 교수 기능으로 치중되어 다른 영역은 상대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은 점은 수험자의 균형된 학습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정적인 washback(Brown, 2001; Jung, 2008; Nunan, 2003; 임정완, 2011b)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영어교육의 세부 영역에서 균형되고 일관성 있는 출제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들어 영어과 교육과정은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핵심역량(교육부, 2015)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달라졌으나, 임용시험에서는 교육과정이나 교재론 영역에서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지식을 예비교사가 갖추고 있는 가를 전혀 평가하고 있지 못하는 현장과 시험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임용시험에서는 이러한 개정된 교육과정에 기초한 문항을 출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문항의 구인타당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된다. 2020학년도부터는 논술형 문항이 폐지되므로, 기존의 기입형 8문항이 6문항으로 줄어들고 서술형 문항이 13문항에서 17문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표2 참조). 이는 전공 지식을 단답형으로 묻는 현재의 기입형 출제 방식을 줄이고 좀 더 심층적인 지식과 응용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바람직한 현상(이소영, 2015)으로서, 여전히 출제될 6개의 기입형 문항을 교사의 전문지식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구인타당도가 높은 양질의 문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더 나은 임용시험을 위해 다각도의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수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안면타당도와 문항 신뢰도와 같은 연구를 수반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그러한 임용시험이 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로 된다.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험 출제 시 반영하는 제도가 확립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영어교육 분야의 문항을 세부 영역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여러 영역에 중복되는 내용을 한 문항에서 평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

었고, 이를 어떠한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것은 융·복합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 고등 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하는 최근의 교육 방향에 부응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항은 여러 세부 영역에 걸쳐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중복 카운팅을 피하기 위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 연구는 1차 임용시험 중 영어교육 분야의 문항만을 분석하였고, 영어과의 다른 전공 영역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2차 시험인 수업지도안과 구술 면접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임용시험의 경향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임용시험 관련 연구가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교원임용시험 제도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 boardID=294&boardSeq=40291&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373&s=moe&m=020402&opType=N에서 2019년 5월 30일 검색함.

교육과학기술부. (2014). *교육계 공무원 채용 선발 시험 부분 개정 입법 사전고지*(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4-110).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4]*. 세종: 교육부.

김기수. (2007). 중등 영어교사 임용고사의 출제문항 내용분석. *영어영문학연구, 49*(3), 65-86.

김아영. (2011). *영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연구: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문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서울.

김정렬, 김영미. (2009). 중등 영어 교원 임용시험 문항 분석 연구: 2006~2009학년도 문항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10*(1), 155-175.

김현숙, 박은영. (2013). 중등 영어 교원 임용시험 2013학년도 1차 문항 분석, *외국학연구, 23*, 53-74.

박광철. (2012) 중등 영어교원 임용고사 1차 문항 분석: 2012학년도 문항을 중심으로. *중등영어교육, 5*(2), 144-163.

박미숙. (2016). 음성, 음운, 형태론 관련 임용시험출제 동향 분석: 2010~2016학년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22*(2), 131-146.

박시영, 송민선, 신상근, 이은주, 이미진. (2017). 영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 분석 연구: 2014~2016학년도 1차 필기시험 문항을 중

심으로.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1*(4). 322-333.

오승하, 김정렬. (2018). TAACO를 활용한 중등 영어 임용시험의 응집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5), 977-997.

윤수연. (2018). 2014~2018학년도 영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영어학 문항 분석.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2*(4), 227-234.

이소영. (2015). 2013년에 개편된 영어과 중등교원 임용시험 지필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원교육, 31*(3), 1-31.

이지연. (2017). 중등영어 임용시험의 1차 시험분석: 2016~17학년도를 중심으로.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3), 207-235.

이현구. (2014). 교육과정, 영어교과서 및 평가에 관한 논문 분석 연구: '영어어문교육' 학술지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20*(1), 497-520.

이혜진. (2017). 개정된 중등영어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성 분석: 2014~2017학년도 영문학 문항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6), 471-493.

임정완. (2011a). 중등 영어과 임용고사 문항 분석: 영어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연구, 6*(2). 55-70.

임정완. (2011b). 중등 영어교원 임용 시험 문항 분석. *현대영어교육, 12*(1), 202-220.

전영주. (2009). 중등 영어 교원 임용시험 2차 영어 논술 시험 분석 및 지도 방안. *영어영문학연구, 35*(4), 157-183.

전영주. (2010). 예비 영어 교사를 위한 영어 쓰기 능력 향상 방안. 영어교과교육, 9(3), 35-5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표시과목 '영어'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중등교사 임용시험*. http://www.kice.re.kr/sub/info.do?m=010602&s=kice#tablink 에서 2019년 4월1일 검색함.

Back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Y: Longman.

Jung, Haeng. (2008). The washback effects of English listening test in Korean CSAT on secondary school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Linguistics, 16*(3), 143-162.

Nunan, D. (2003).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NY: McGraw-Hill Education.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College

임정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Email: jwlim@daegu.ac.kr

Received: April 15th, 2019
Reviewed: May 27th,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June 5th, 2019